

# 영광군, 인력 취약 농가 집중 일손돕기 나섰다

## 내달 17일까지 추진 기간 영농적기 실현·경영안정 수작업 필요 농가 우선 선정

영광군이 고령 농가들의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작업 적기 실현과 농가 경

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 일손 돕기를 시작한다.

군은 6월 17일까지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장구를 설치해 일손 지원 희망 농가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 중에 있다.

농촌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친환경 농업

팀 또는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 개설된 농촌 일손돕기 알선 장구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일손 돕기는 독거노인, 장애 농가, 고령농가 등 일손이 취약한 농가와 작목별 농작업 시기에 따른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매년 농촌인구의 감

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취약 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장성군, 공무원 칭찬함 운영 민원인 칭찬카드 작성

장성군이 민원봉사과 출입구에서 ‘달달한 칭찬함’을 운영하고 있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민원인이 칭찬하고 싶은 직원에 대한 내용을 칭찬카드에 적어서 ‘달달한 칭찬함’에 넣으면, 군이 가장 많은 지명을 받은 직원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해 반기마다 표창한다.

군정의 소통창구 역할도 맡는다. 칭찬함에 건의사항이나 군정 발전 의견도 넣을 수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군은 관련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진행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임영에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은 “달달한 칭찬함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 증진과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민원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달달한 칭찬함’ 외에도 △민원처리 자가학습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일일 민원 안내 도우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 금동관·금동신발 상설 전시 나주시, 나주역·송정역에

나주시는 신촌리 금동관(대한민국 국보 제295호)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대한민국 보물 제2125호)을 양 역사에서 상설 전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역 대표 문화재인 금동관과 금동신발 재현품을 제작해 지난 2일부터 각 2점씩 총 4점을 전시 중이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1997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돼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2021년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돼 현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출토된 나주 금동신발은 현존하는 금동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자랑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선조들의 정교한 금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나주의 화려한 역사·문화적 자원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스마트 토마토반 교육생 모집 담양군, 농업인대학 22일까지

담양군은 오는 22일까지 17번째 농업인대학 ‘스마트 토마토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말부터 11월까지 주 1회, 총 20회 10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토마토 재배 기술, 스마트 시설 설치 및 환경제어, 기능성 토마토, 선진 농장 견학 등 스마트농업을 활용하여 정밀하고 과학적인 토마토 재배 기술 학습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담양군에서 거주하며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거나 스마트농업을 이용한 토마토 재배를 희망(준비)하는 농업인이다. 40명 내외로 모집하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담양=신재현 기자



## 쌀 1000kg 이웃 기탁 장성군 골프협회

장성군 골프협회가 지난 13일 회장 취임식에서 기탁받은 쌀 1000kg(300만원 상당)을 군에 전달했다. (사진)

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 함께 한 신임 조이현 회장과 나회일 전임회장은 “축하의미로 쌀을 기탁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회원들과 함께 장성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뜻깊은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탁품은 조손가정, 독거 어르신 가정 등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미술교실 유화반 수강생 모집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화순군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관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실 유화반’ 프로그램을 2강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에 있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은 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예술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창작실에서 진행되는 성인프로그램 ‘미술교실 유화반’은 미술의 아름다움과 예술적인 영감을 심어줄 전문 강사가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주제와 기법을 가르친다. 수강생들은 작품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받으며 자신만의 예술적인 표현을 향상할 수 있는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교육은 24일부터 8월30일까지 15회차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미술교실 유화반’ 수강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7명이다. 미술에 관심 있는 관내 주민(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누리집(<http://sbart.or.kr>)에 접속하여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수강 신청 당일 오전 9시부터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화순읍 진각로 249-8)에서 선착순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지난 12일 영광군이 난장트리 공개행사를 통해 ‘영광법성포단오제’ 서막을 알렸다.

영광군 제공

## ‘풍년·풍어 기원’ 영광법성포단오제 화려한 서막

### 내달 7일~10일 단오제 앞서 난장기 숲쟁이 부용교에 설치

영광군이 지난 12일 숲쟁이공원 부용교와 법성포 종목 중 하나인 난장트리 공개행사를 통해 ‘2024 영광법성포단오제’의 화려한 서막을 알렸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원형난장기는 신죽(神竹)을 베어 국가 명승 제22호로 지정된 영광 법성진 숲쟁이 부용교에 설치했다.

보부상 백목전제의 행렬이 이어진 법

성포뉴타운 문화광장에는 대형 난장기와 함께 한 해의 무사안녕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지역 기관사회단체의 깃발을 연결하여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2024 영광법성포단오제 본행사는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및 법성포뉴타운 일원에서 ‘바람 따라 풍류따라(海風樂風)’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인 용왕제, 선유놀이,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당산제, 산신제, 민속놀이 경연

대회, 씨름왕 대회, 단심줄놀이, 창포 머리감기, 장어잡기, 단오제 주재판, 각종 공연·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양해일 회장은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난장트리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왜 서해안 대표 전통축제인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 둘레길 숲가꾸기



영광군이 물무산 둘레길 숲 가꾸기에 나섰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물무산 행복숲 둘레길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15일 밝혔다. 이번 물무산 행복숲 숲가꾸기 사업은

지난 4월15일 착수해 24일까지 추진하며 물무산 행복숲 둘레길 주변에 숲아베기, 가지치기, 덩굴류 제거, 고사목 및 잡관목 제거 등 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가꾸기사업을 통해 산림을 체계적인 관리하고, 특히 물무산 행복숲을 찾는 방문객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보다 나은 쾌적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이점 널리 양해를 구한다”며 “물무산 행복숲을 건강하고 더욱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